

재미한인수의사회의 반추와 비전



신 동 국
재미한인 수의사회
davuddongkuk@hot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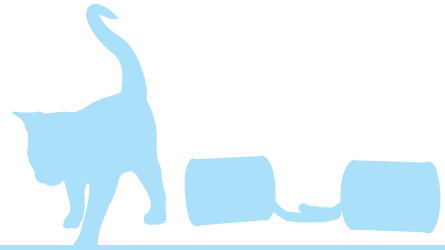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750만이 넘는 한민족이 세계 180여 개국 이상에 나가서 살고 있다. 미국 어느 소도시에 가도 한국인을 만날 수 있다. 수의사의 해외 진출은 대부분 미국에 있고 약간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 북미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임상수의사로서 일하는 사람은 전무한 실정이다. 대한수의사회지에 실렸던 고려, 조선시대와 일제강제병합시대의 수의사 관련된 역사를 읽으면서 현재 우리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혜로운 민족은 자신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 속에서 배우고 전진시켜 나간다. 38년간의 우리 재미한인수의사회 역사를 간략하게나마 반추하고 앞으로의 갈 길을 조명함은 뜻 깊은 일이라 생각된다.

근거자료

우리 재미한인수의사회의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수고하셨던 정길택 회원께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아두었던 창간호부터 25년째까지의 수의계, 재미한인수의사회보와 신동국 회원이 26년째부터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재미한인수의사회보, 창립 25주년 기념사업으로 만들었던 책인 ‘四半世紀’, 신동국 회원이 보관하고 있던 남가주수의사회의 News Letter와 재미서울대수의대동창회에서 발행했던 News Letter 등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1983년 남가주로 이민 와서 계속 거주하며 임상수의사로서 여러 수의사협회 일에 관련한 관계로 미국 서부의 일은 잘 알고 있으나 타 지역의 일과 초창기의 일은 잘 알지 못하므로 미흡한 점은 양해를 바란다.

재미한인수의사회의 창립, 발전과 임원진들

재미한인수의사회의 결성을 위한 기초 아이디어는 1970년이었지만 여러 여건상 미루다가 1972년 7월에 첫 공식모임을 Washington D. C. 에서 개최하였다. 회원간의 상호교류와 친목 도모, 질적 향상과 미국수의사 면허 취득을 위한 정보교환 등을 목적으로 미국 동부에 거주하던 29명의 회원이 창립하였으며 한 달 안에 42명으로 늘어났다. 처음에는 회보를 ‘수의계’라 칭하였고 창간호는 1972년 3월에 발간하였다. 고 이일화 회원의 집주소인 742 Critten st. N. W. Washington D. C. 20011을 본부로 하였다. 6개월 후 3호부터는 지



흥민 회원이 근무하던 Ross Veterinary Hospital인 5133 MacArthur blvd. N. W. Washington D.C. 20016에서 1년간 본부로 정하고 활동하였다. 회의 공식명칭은 Korean Veterinary Society of America, 재미한인수의사회라 정하고 회보의 휘호는 이기풍 회원이 썼다. 처음에는 손으로 써서 발행하다가 후에 타자기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내용은 미국수의사면허 취득을 위한 ECFVG, National Board 시험에 대한 정보, AVMA회원가입 정보, 회원들의 소식과 주소, 애경사 등을 게재하였다. 초기에는 한국 수의계와 긴밀한 연락, 격려의 글, 한국수의학의 발전과 수의계의 문제에 대한 의견 등을 실었다. 당시 본회의 최대 현안은 시험 정보였다.

1973년 지흥민, 김문소 회원들이 National Board 시험에 합격한 뒤 정보를 제공하였고, 1976년 오하이오 주의 유형규 회원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국 동부에서 1973~1980년 사이에 많은 합격자가 나왔다. 창립과 초기 발전을 위해 고 이일화 회원께서 많은 수고를 하였다. 초대회장으로는 조병울 교수가 하였고, 이어서 김상남, 이기풍, 이일화, 오연각, 김진수, 김현영 회원들이 1984년까지 동부에서 회장을 하다가 1985년 캐나다의 조한철교수가, 1986년 미서부로 옮겨와서 이정재, 정길택, 손수웅 회원들이 회장을 역임하였다. 1989년 미동부로 옮겨가서 신쌍재, 홍학석, 윤영현 회원들이 회장을 하였다.

1992년 미서부 남가주로 와서 김영 회원이 하였고, 1993년부터 이갑재, 지흥민, 김문소 회원들이 하였다. 그 당시 벌써 동부에는 일할 수 있는 젊은 회원들이 없어서 1992년부터 현재까지 남가주에서 우리회를 이끌어 오고 있다. 1996년부터는 오영문, 박승환, 장철봉, 박홍락, 최재현, 강상봉, 유형규, 김승창, 김승호, 권태삼, 이세영, 승원표, 강동원, 이병희 회원들이 회장을 역임하였고 2010년에는 신동국 회원이 회장을 하고 있다.

1973년 9월 23일에 재미한인수의사회 회칙을 만들어서 공표하였고 그 뒤에 몇 번 수정을 하였다. 1960년대 중반 동부의 코넬대학에서 교수로 있던 이규명, 김상남 교수와 University of Washington에 있던 조병울 교수들은 한국의 후배 수의학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우리회는 1979년 오연각 회장 때에 이르러 이사회를 만들어 재정의 기틀이 안정되었고, 지흥민 회원의 주선으로 필리델피아주에 PA-80631389로 비영리 기관 등록이 되었다. 연방정부등록을 준비하다가 본부가 동서로 왔다갔다하면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 2004년 김승호 회장, 2005년 권태삼 회장 시에 2년에 걸쳐서 그 동안 세금보고 미비로 밀린 세금 수 천불을 지급하고, 몇 천불을 들여서 연방정부에 비영리단체 중 501(C)(6)으로 분류 등록하였고, CA주정부에는 23701E로 분류 등록하였다. 그 뒤로 세금 관리하는 임원을 두어서 비효율적인 낭비를 방지하고 있다.

Study group

정길택 회원은 서울대 수의대교수로 재직하면서 우리회의 창립 초기부터 관여하여 한국지부의 간사역을 맡아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회보가 오면 복사해서 각 대학, 연구소와 대한수의사회 등에 배포하였다. 미국에 유학이나 이민을 가고자 했던 사람들은 그와 면담하여 많은 조언을 받았다. 그는 1978년 교수직을 사임한 뒤 1979년 미국 남가주로 이민을 왔고, 오자마자 벌써 이민을 와 있던 회원과 한국에서 들어오는 회원들에게 연락하여 study group을 만들어 많은 회원들이 면허를 취득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김영 회원은 교장선생님이란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공부에 열심이었고 다른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Study group은 재미 한인수의사회 역사에 큰 역할을 하였다. 기존의 멤버가 면허공부를 하면서 모았던 자료들을 후임자에게 계속 물려주었고, 서로 열심히 공부하며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도와줌으로써 빨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으며, 이민초기의 어려운 삶 속에서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많은 힘을 주었다. Study group에서 같이 공부했던 회원들은 평생을 가면서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서로간에 많은 도움을 주면서 살고 있다. 그 동안 미국의 시험제도가 여러 번 바뀌었고 IT산업의 발달로 정보수집이 빠르고 개인주의의 성향과 실력의 향상, NAVLE시험을 미국이 아닌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볼 수 있고 해서 현재는 study group이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적으로 공부하고 가끔씩 서로 연락해서 정보를 얻는다. 이제는 한국서 미국 면허를 취득하고 바로 미국의 동물병원으로 취업을 오는 회원들이 늘고 있다. 그로 인해 서로간에 모르고 상호 유대 관계가 없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젊은 수의사들끼리의 만남을 주선하여 교제하며 친분을 다지고 있다.

Korean– American Science Exchange Program

학자들의 헌신

초창기에는 이규명, 조병률, 김상남, 조한철 교수들이 수의학의 발전에 헌신을 하였다. 후배들이 도전 받고 수의학에 헌신하게 했고 조언과 지도를 통해서 후임 교수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후에는 코넬대학의 신쌍재 교수, 미네소타대학의 주한수 교수,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의 조두연 교수들의 수고와 헌신 속에 박사학위와 연수를 받고 들어간 후배들이 한국의 수의과대학과 연구소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

특히 신쌍재 교수와 주한수 교수는 한국의 수의학자들 수십 명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다수는 한국으로 열마는 미국에 잔류하였다. 미국에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인턴을 할 수 있게 도와주어 많은 회원들이 코넬대학을 거쳐 미국 수의사면허를 취득하였다.



세미나

1980년 이후 한미학술공동세미나가 대한수의사회, 서울시수의사회, 각 지방수의사회와 각 수의과대학 등과 연계하여 많이 이루어졌다. 지면상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1984년 6월 처음으로 한미학술공동세미나가 6월 25~30일 사이에 서울 건국대 수의대에서 개최되어 강사로 신쌍재, 주한수, 하병래, 지흥민, 김현영 회원들이 수고하였다.

대한수의사회와 연계하여 한미합동소동물임상세미나가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실시되었다. 강사로 는 장철봉, Albert 안, 김영춘, 이병인, 유형규, 오연각, 지흥민, 최재현, 김영, 문홍식, 하병래 회원들이 수고 하였다.

한국 대동물수의사 Training

1980년 초 한국에서 낙농업이 번성할 때, 한국의 대동물수의사들을 training시키고자 하는 큰 뜻으로 한국 에서 서울우유임상수의학회 강용만, 최광수회장, 미국에서는 코넬대학의 신쌍재교수와 미네소타수의과대학 을 졸업하고 Manawa, Wisconsin에서 대동물병원 원장이던 하병래 회원이 Training program을 계획하 여 대한수의사회(이남신 회장, 이순우 사무총장)의 협력으로 총 35명에게 4주 동안 미국의 첨단 대동물 수의 학을 소개하고 우수소 번식, 유방염, 내과, 전염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수시켰다.

재정적 지원 없이 1985년에 시작하여 1차에 3- 4명씩 10차에 걸쳐서 2-3주는 하병래 원장이 field training을 혼자서 맡아서 했고, 2-3주는 코넬대학의 대동물병원에서 낮에는 임상교수들과 레지던트들에게 청탁을 하여 도움을 받아 Dairy medicine 을 연수했으며, 밤에는 신쌍재교수의 진단연구소 세균학 실험실에 서 유방염 진단과 강좌, 병원균 배양 실험 등 3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번도 좌절하지 않고 헌신한 두 분의 공로는 매우 큰 것이다. 초창기 한국의 대동물 수의사들의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모든 비용 을 아껴가며 배워야 한다는 욕망으로 어려움을 모르고 헌신했던 서울우유조합 수의사 회원들께 찬사를 보 낸다.

특히 Mrs 신과 Mrs하 사모님들의 따뜻한 밥, 김치와 환한 웃음으로 한국에서 온 손님들을 성심 성의껏 대접 하여 이국의 어려움을 달래준 수고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다.

여기에 참가한 수의사들은 강용만(서울), 최창수(인천), 김문겸, 정영호, 장세진, 김학훈, 정수일, 이상만, 이호 원, 송희락, 한종호, 김태희, 정영채, 오남진, 성재현, 윤동식, 김기호, 안민규, 전은진, 이영진, 이종식, 김남 성, 서창우, 윤석정, 김영찬, 김병기, 김종국, 임영일, 배원환, 송재국, 정상화, 신종봉, 김기숙, 정용호, 남기석 등 총 35명이다.

미네소타수의과대학과 한국 수의학의 발전

6,25 동란으로 폐허가 된 서울대학교를 조속히 재건하기 위해 1954- 1962년 사이에 미네소타대학과 서울 대학교와의 자매결연으로 총 299명의 서울대 교수들이 3개월- 2년 기간으로 집중교육을 받기 위해 유학을 왔다. 수의대도 조병률, 전윤성 교수들을 비롯해서 많은 교수들이 유학을 하였다. 미네소타대학의 Dr. Ben Pomeroy, Dr. Al Weber, Dr. John Arnold등 세 교수는 한국 수의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하병래 회원은 1976년 이 대학을 졸업했다. 유일하게 한국인 1세로 미국 수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주한수교수가 1980년부터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유학생들이 몰려왔다. 그의 도움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의 수의과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이 많다. 박사학위 취득자는 강신영, 김현수, 김철중, 이장현, 유한상, 박봉균, 이소영, 김금화, 최창수, 최정업, 이충섭, 신진호, 김인정, 윤인중 박사들이 있으며 그 외도 많은 분들이 있다. 수십 명이 유학을 와서 한국에 돌아가기도 했고, 이사균, 소진욱 등은 미국에 잔류하여 수의사가 되었다. 장기 또는 단기로 방문하여 연구 및 연수를 한 분들은 조성환, 이인세, 김봉환, 백병걸, 설성용, 이병천, 신현덕, 성환우, 황인수, 민동수, 정현규, 김준영 들이다. 특히 주한수 교수는 돼지위생 및 생산관리향상을 위해 일하는 만큼 한국양돈업계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한국에서 양돈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다녀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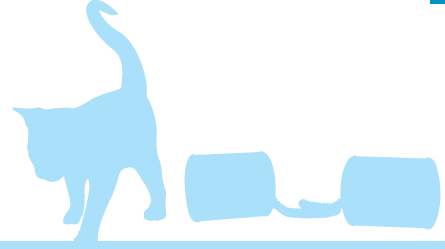
기타

그 외에도 Aleutian Disease와 Scrapie의 연구로 유명한 캐나다의 조현주교수는 조용하게 많은 공헌을 하였고, 수의사이면서 MBA를 취득한 유형규 회원은 Business practice seminar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포모나에 위치한 미국 유일의 사립수의과대학인 웨스턴수의과대학의 이용훈 교수도 한국의 각 수의과대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신쌍재, 주한수 교수들은 대학에 몸담고 있으면서 후배들과 한국수의학에 대한 사랑으로 많은 이들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었다. 좋은 귀감이라 하겠다.

Cornell수의과 대학과 한국 수의학의 발전.

한국마사회수의사, Cornell수의과대학과 켄터키대학 수의학부와 연수 교류

88 올림픽을 한국에서 주최하게 되었을 때 올림픽 경마회위원회에서 한국에는 경주말을 치료할 수 있는 외과 수의사가 없고 시설이 미비하여 경마경주를 취소하겠다고 위협을 했었다. 그 결과로 코넬수의과대학의 신쌍재교수와 마사회가 training program을 기획하여 코넬수의대의 대동물 외과 교수들과 학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88올림픽을 대비해서 1987년에 두 명의 수의사(김해식, 하태영) 들이 1년 동안 Equine surgery 를



intensive training을 받았으며, 신쌍재교수와 친분이 있는 켄터키대학 Gluck Equine Research Center의 Director Dr. Peter Timoney의 열성적인 도움으로 첨단 경주말 Surgery and Medicine을 연수 받을 수가 있었으며, 결과로 올림픽 경마위원회에서 경마경주를 하기로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코넬대학의 여러 교수들과, 켄터키 대학교수들이 마사회의 초청으로 방문하여 Surgical short course와 Equine Medicine and infectious disease에 대해서 강좌와 토론을 했으며 이런 유대는 계속되어 가고 있다.

Kentucky 대학의 Equine Research Center의 Dr. Timoney는 신쌍재교수가 선발하여 추천한 마사회 고연영 수의사를 5년 전에 full scholarship을 수여하면서 Equine virology를 연구하는 박사학위과정의 대학원 학생으로 받아 들여 지난 학기에 박사논문이 완성되어 한국에서 처음으로 Equine Virology Expert가 탄생한 것이다. 지금까지 참가한 수의사는 : 충남대 신상태교수(2년 연수), 김해식, 하태영(1년), 황용규, 양영진, 박경원, 김병현외 두 명의 수의사 (6개월), Cornell: Drs. Norm Ducharm, Susan Fubini, Rick Hacket, Kentucky: Dr. Peter Timoney.

한국동물검역소 연구관 Cornell수의과대학 연수

신쌍재교수는 한국동물검역소(수의과학연구소)의 해외연구관으로서 많은 후배들을 코넬수의과대학에서 1-2년 동안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 한승희, 변성관, 이우영, 김철규, 한숙희, 정병열 외에 많은 연구관들이 신쌍재교수가 있는 코넬수의진단연구소에서 연수를 받고 갔다.

한국수의과대학 교수들 Cornell수의대 연수

많은 한국 수의대 교수들이 신쌍재교수의 알선으로 코넬수의과대학에 1-2년 동안 연구와 연수를 하고 돌아가 한국의 수의학후배들 양성에 많은 공헌을 했다. 참가 학자들: 1) 한기영교수(안성대), 2) 윤화중교수(건국대), 3) 한홍률교수(서울대), 4)김태종교수(건국대), 5) 김두교수(강원대), 6) 윤하영교수(경북대), 7) 변병대교수(경북대), 8) 신광순교수(충남대), 9) 이영원교수(충남대), 10) 김은희박사(중앙백신), 11) 정종태교수(제주대) 12) 윤화영교수(서울대)

서울수의과대학BK-21 Program at Cornell

서울대수의과대학의 BK-21(Brain Korea-21st)program은 공동연구대학으로 Cornell 수의과대학 연구팀과 2000년부터 결연을 맺어 서울대의 유능한 젊은 대학원학생들을 코넬수의과대학의 연구실에서 공동연구와 연수를 하는 program으로 계속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1년 이상 연구하고 돌아간 학생들

은 이미 학위를 마치고 우수한 연구원으로, 대학 교수로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다. 참석자: 구혜정(연구원), 신성재(교수), 정승우(Cornell 박사학위 후 Cardiology resident at UC Davis), 최진향(Cornell PhD graduate), 김연희(Cornell PhD graduate), 박승언(Cornell PhD graduate)

ECFVG training at Cornell

많은 한국의 후배 의사들이 ECFVG program으로 Training을 받았다.

참석자: 김종민(PhD후에 Surgery residentship training at Purdue), 이완구(CA practice), 한상균(CA practice), 박규영(CA practice), 송국주(CA intern), 최지선(Conn intern), 박지영(CA practice), 박지연(Conn. Practice), 강태우(CA practice), 심형섭(CA practice), 이외 많은 의사들이 ECFVG training 을 받았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과 Cornell수의과대학 자매결연

코넬수의과대학에서는 신쌍재교수의 은퇴를 기념하면서 한국수의학계와 코넬수의과대학의 학술적인 관계를 32년 동안 증진시킨 데 공헌했음을 인지하고 신쌍재교수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과의 자매결연을 교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2005년 10월 28일에 서울대학교수의과대학 교수회의실에서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코넬수의과대학측 참석자는 학장 Donald Smith와 원로교수 3명이 참석하여 Seminar와, 서울수의과대학 측에서는 양일석학장을 비롯하여 모든 교수들이 참석했다. 지금까지 매년 2- 3명의 서울대 3-4학년생의 Summer externship program은 잘 진행되고 있으며 BK-21 program을 통한 collaborative research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Memorandum of Agreement를 요약하면:

- 교수 exchange program
- Junior Clinical faculty Cornell training,
- Students externship at Cornell Clinic
- Professional graduate training program,
- Collaborative research program

신쌍재교수는 코넬수의과대학의 교수로서의 신분을 힘껏 활용하여 한국의 여러 수의학분야의 교수, 연구자와 의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공헌을 하였다. 그 공로를 인정하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동창회에서는 '자랑스런 수의대인상' 을 수여하였다.



수의전문의(specialist)와 National Board시험문제출제위원

미국에서 수의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대학 4년, 수의과대학 4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을 거친 뒤에 시험을 보고 통과해야 한다. 아직도 장벽이 있어서 외국인에게는 문호를 잘 개방하고 있지 않다. 몇 명을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이갑재 회원: Diplomate of American College of Laboratory Animal Medicine(1976년 7월 취득)

신쌍재 회원: Diplomate of American College of Veterinary Microbiologist(1986년 2월 취득)

하병래 회원: Diplomate of American College of Theriogenologist(1986년 10월 취득)

김대영 회원: Diplomate of American College of Pathologist(2004년 10월 취득)

윤경진 회원: Diplomate of American College of Veterinary Microbiologist(2006년 2월 취득)

현재 젊은 회원들이 외국인으로서 힘든 surgery, cardiology, radiology 분야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하고 있어서 몇 년 있으면 더 많은 전문의가 나오게 될 것이다.

여형선, 장철봉, 유형규 회원들은 미국의 National Board시험문제 출제위원으로, 신쌍재 회원은 American College of Veterinary Microbiologist Board exam 출제위원으로 수년간 수고하였다

Fund Raising과 기부금

회원들의 어려움, 천재지변과 재난 시의 구제 모금, 국회의원후원회와 한국의 수의회관건립 등 여러 가지 일에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참여하여 도움을 주었다.

고 이일화 회원은 우리회의 창립과 발전을 위해 11년간 피땀 흘려가며 많은 수고를 하였고 한국 수의학의 발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어려운 후배들과 약자를 돕는데 앞장섰다. 불행히도 1981년 11월 23일 4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회원 많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63명의 많은 회원들이 조위금 \$6,000.00을 모아서 전달하였다.

1992년 5월에 캘리포니아주의 L.A.에 4, 29폭동 시 피해를 입은 동포들을 돕기 위해 34명의 회원들이 \$2,800.00을 모금하여 LA중앙일보를 통해 피해동포들에게 전달하였다.

1995년에 한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수의사들의 권익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였던 이길재 국회의원에게 12월 31일 정기총회에서 후원금으로 일만 불을 전달하였다.

1998년 이길재, 이우재 국회의원 후원회가 결성되어 37명이 일만 불을 모금하여 전달하였다.

한국에서 경기도 분당에 수의과학회관 건립 시에 재미한인수의사 39명이 참여하여 1998년 1월 ? 10월 사이에 \$10,200.00을 모금하여 전달하였다. 2002년 국회의원으로서 한국 수의사의 권익을 위해 수고하였던 이우재 국회의원 후원회가 조직되어 53명의 회원들이 모금한 \$18,600.00을 전달하였다. 이길재, 이우재 국회의원들은 대한수의사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매년 총회 때마다 참석하였고 상호간에 교류증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였다. 2003년 자동차가 병원을 들이받아서 피해를 본 장철봉 회원에게 29명의 회원들이 \$6,400.00을 모금하여 전달하였다. 2005년 9월 20일 카트리나 수해의연금 모금을 위한 남가주수의사회 추계골프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4,000.00을 기부하였다. 2009년 8월 캐나다 온타리오의 Guelph 수의과대학에서 추진하는 Dr. Schofield ? Korean Memorial Seminar Room Fund Raising에 19명이 \$15,000.00을, 한국에서 동참한 7명의 \$1,123.40을 기부하였다. Dr. Schofield는 3.1독립운동의 34인으로 불리며 한국을 위해 많은 헌신을 한 캐나다 인으로서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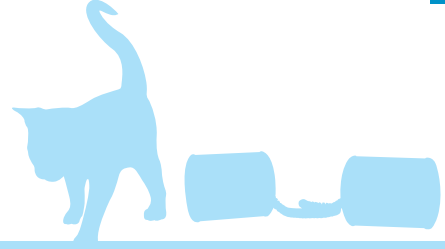
창립 25주년 기념사업위원회

1996년부터 준비하여 1997년 연말 총회에서 큰 행사를 치렀다.

위원장: 정길택, 부위원장: 김현영, 김영, 학술 : 신쌍재, 총무 겸 편집: 장철봉, 재무: 최재현, 위원 : 지흥민, 김문소, 오영문, 강상봉, 이경의, 이세영, 신동국 25년의 역사와 회원들의 회고록, 가족사진 등 다양한 장르로 쓴 글들을 370여 페이지의 분량으로 만든 책인 '四半世紀' 을 출간했다. 그 동안 수의사회를 위해 수고한 지흥민, 홍학석, 김영 회원들에게 일화상을 수여하였다. 일화상은 고 이일화 회원의 수의사회에 대한 헌신과 공로를 기념하여 만든 것이다. '四半世紀' 출판 비는 한국의 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 윤지병 사장이 \$24,000.00을 기부하였고, 재미한인수의사 회원 72명이 \$28,600.00을 모금하여 큰 행사를 잘 치렀다.

남가주한인수의사회 (Korean Veterinary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1970년 중반 남가주에 수의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정길택 회원이 1979년 남가주로 이민을 오면서 study group이 결성되어 많은 회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면허를 취득하는 회원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1979년 박홍락, 유형규, 조운하 회원들이 면허를 취득했다. 1982년 회원이 34명으로 증가하여 재미한인수의사 전체의 1/4이상이 거주하였고 임상수의사는 20명이 되었다.



1980년부터 임상수의사들이 Continuing Education(C.E.)을 시작하여 1981년 1월 31에는 제 5차 모임을 가졌다. 임상수의사들의 공식적이 모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1984년 11월 13일 강상봉 회원의 병원에서 33명이 참석하여 C.E.을 한 뒤 남가주수의사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하였다. 주 목적은 C.E.와 회원간의 친목과 단결이었다.

1985년 초대회장에 이정재 회원이 그 뒤로 매년마다 회장이 선출되었다. 1986년부터 김홍조, 손수웅, 문재룡, 정길택, 오갑출, 김영, 김훈, 박홍락, 박승환, 오영문, 최재현, 강상봉, 김승창, 김승호, 이세영, 권태삼, 이병희, 신동국, 승원표, 김성겸, 최기준, 최용준, 방유식, 소진욱 회원들이 역임하였다. 2010년에는 김장우 회원이 역임하고 있다. 일년에 8-11번의 C.E.를 개최하였고, 야유회와 골프대회를 2-4번을 개최하여 친목을 다지고 있다. 처음에는 자비로 저녁식사와 강사비를 조달했으나 얼마 뒤에 제약회사들의 sponsor를 받아서 하고 있다. 1970년대 후반에 한국인으로서 수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인가된 인턴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약간의 차별과 무시 속에서 어눌한 영어로는 쉽지 않았다. 처음에 한 분이 동물병원에 인턴 자리를 잡으면 그가 열심히 일하여 한국인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었고 그 후임으로 다른 수의사가 인계 받으면서 한 병원에서 7-10명이 계속 이어 받았다. 2002년 6월 20일 C.E. 모임에서 그 동안 도와주었던 Dr. Miller와 Dr. Gerstner에게 수의사회에서 공로패를 증정하였다. 2010년 현재 남가주에는 재미 전체 회원의 50%가 거주하고 있고 전체 임상수의사 163명중 92명이 남가주에 거주하고 있다.

재미서울대수의대동창회

1979년 정길택 회원이 남가주로 이민 오면서 study group이 형성되었고 자연스럽게 서울대 동문들이 모이게 되어 동문간의 교류와 친목을 위해 남가주서울대수의대동창회가 1979년 결성되어 초대회장에 이정재 회원, 총무에 정길택 회원이 하였다. 임기는 1-4년으로 하고 있다. 이어서 조지훈, 양희곤, 박희규, 오갑출, 손수웅, 김영, 오영문, 최재현, 이봉수, 이정호, 강상봉, 권태삼, 박익순, 강동원, 문홍식, 승원표, 박종수, 박민식 회원들이 회장을 역임하였다. 2009, 2010년에는 신동국 회원이 역임하고 있다. 동부에도 동창회가 먼저 결성되었다. 남가주에는 회원이 증가하고 동부에는 젊은 회원들이 충원되지 않음으로 인해 2000년대 중반에 재미서울대수의대동창회로 명칭을 바꾸고 재미 전체를 통괄하고 있다. 2010년 현재 회원수는 234명이며 남가주에 50%가 거주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모교 학장 초청과 학생 연수이다. 매 2-4년마다 학장이 바뀌면 미국에 초청하여 서로간에 교류증진과 모교 소식을 듣는다. 그 동안 다녀가신 분들은 이장락, 정창국, 임창형, 권종국, 조충호, 최희인, 이영순, 이흥식, 이문한, 양일석, 박용호, 권오경 학장들이다.

학생연수 사업은 1991년 오갑출 회장의 아이디어로 1992년 손수웅 회장 시에 처음 시작되었다. 매년 2명을 초청했고 가끔씩 3명도 초청했다. 초청된 학생들은 윤덕원, 이상록, 노상호, 한민, 배근환, 황병태, 박수진, 정미선, 정언승, 김진태, 양한석, 유종현, 김찬란, 최지혜, 김종민, 김순영, 김수민, 오병철, 배보경, 정연우, 권정국, 성의제, 장재영, 고영환(2004), 임창윤, 이선태, 서상호, 이종윤, 김학상, 서정연, 김두옥, 고영환(2008), 심호철, 장기영, 한승희, 손형락, 김현정 등 2010년까지 37명이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재미동창회의 모교을 위한 사업에 감사하는 보답으로 초빙교수 또는 겸임교수로 동문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하고 있다. 다녀온 회원은 손수웅, 승원표, 이정재, 문홍식, 김영, 이봉수, 최재현, 유형규, 이재현, 권태삼, 신동국, 장철봉, 강동원, 이병희, 김영주, 김종민, 박민식, 심영춘, 오연각, 성홍환 회원 들이다. 재미동창회 회원들이 모교에 기부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2005년 신동국 일만 불, 2007년 서울대수의대 개교 60주년 행사 기부: 박민식, 문홍식, 김영, 승원표, 강동원, 신동국, 박종수 각 백만 원(총 7백만 원), 2008년 박민식 일억 원, 2009년 박종수 10만불 약정(\$50,000.00 기부), 손수웅, 김영 회원들은 남가주서울대총동창회장을 역임하였다. 김영 회원은 2005년 회장 시에 수의대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김영 회장의 아이디어로 2005년 7월에 L.A. downtown의 Walt Disney Concert Hall에서 수 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 1회 남가주서울대 합창단 공연은 아주 좋은 호응을 얻었고 그 이후로 매년 개최되면서 L.A. Korea Town의 훌륭한 문화행사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박종수 회원은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동창회, 사회의 여러 단체와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헌신과 도움을 주었다.

서울대수의대동창회에서 수여하는 '자랑스런 수의대인상' 수상자: 신쌍재, 김영, 재미서울대수의대동창회, 박종수

미국 수의사 면허시험 과정 중인 후배에게 격려금 전달: 2007년 8명(각 \$200.00), 2009년 4명(각\$200.00), 2010년 3명 (각 \$400.00)

회원들의 사회활동과 봉사

많은 회원들이 수의사로서, 학자로서, 연구소와 각자의 사업 일터에서 일하며 사회활동과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다. 각 지역사회 의 단체장으로 봉사한 회원들은 조한철, 조형원, 조정현, 손수웅, 김영, 김문소, 김길남, 주한수, 강영배, 박종수, 최재현, 윤상래, 강동원, 이재현 등 그 외 많은 분들이 있다. 김현영 회원 부부는 은퇴 후 과테말라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손수웅 회원은 LA의 한국일보 수의사 상담란에, 장칠봉 회원은 LA중앙일보에 글을 오랫동안 기고하고 있다. 승원표 회원은 LA에 있는 한국방송에 나가서 수의상담을 하였다. 바쁜 중에도 책을 저술한 회원들은 장칠봉, 이봉수, 강상봉, 신동국, 이주성 회원들이 있고, 김현영, 장칠봉, 신동국 회원은 대한수의사회지에 글을 기고하였다. 유형규 회원은 미국 수의사저널에 글을 기고하였다.

회원들의 증가와 직업

1972년 창립 초기에 42명이었던 회원은 1980년대 한국에서 유학의 자유화와 미국에서 이민문호가 열림으로 인해 많은 유학생과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왔다. 창립 초기에 부회장을 역임한 이주성 회원은 1958년 도미하여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인 수의사로서는 처음으로 1963년 미국수의사면허를 취득하였고, 처음으로 1964년 Arkansas주의 Malvern에서 동물병원을 개업하였다. 1960년대 후반 이일화 회원을 만나 도움을 주었다.

1971년 두 번째로 이일화 회원이 면허를 취득하였고, 1972년 홍학석 회원이, 1973년 지흥민 회원들이 펜실베니아주에서 면허를 취득하면서 그 지역이 1985년까지 본부의 중심이 되었다.

1980년 면허시험제도가 Intern 제도를 요구함에 따라 고 이일화, 지흥민 회원들이 함께 운영했던 Broad Street Animal Hospital이 인턴십 인가를 얻어 매년 두 명씩 14명이 인턴을 하게 되었다. 대동물은 오연각 회원의 도움으로 펜실베니아수의과대학에서 인가를 얻어 큰 도움이 되었다. 1979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study group은 전성기를 맞이하여 면허취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예로 1984년12월 National Board시험에 10명이 합격하고 1985년 2월 State Board에 9명이 합격하여 한국인으로는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 이광일, 이경의, 김명윤, 유한택, 승원표, 박효흠, 박찬식, 강동원, 신동국 회원 들이다. 이 그룹은 오랫동안 매달 모이면서 서로간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현재까지 꾸준히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에 미국 중서부에 있던 많은 회원들이 좋은 환경과 경제적 이유 등으로 남가주로 대거 이동하여 면허를 취득하였다. 1975년 회원수가 70명으로, 1984년 185명으로 증가되었으며 60명의 임상수의사가 있었고, 1997년에는 253명의 회원으로 증가되었고 임상수의사는 100명 이었다.

2010년 현재 회원 수는 320명이 되며 임상수의사는 163명에 이른다. 은퇴하신 분들까지 포함하면 미국수의사면허취득자는 170여명이 된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한국에서 젊은 수의사들이 미국에서 수의사가 되고자 오기 때문에 1980년대처럼 젊은 회원들이 다시 증가하고 있고 임상수의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대학, 연구소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임상수의사 다음으로 많다.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있다. 연세가 40이 넘어서 이민오신 분들은 수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공부 that 쉽지가 않아서 대부분이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의 초청으로 미국에 오신 분들도 있다. 분포를 보면 남가주에 전 회원의 50%가 거주하고 있다. 북가주에 십여 명, 동부에 십여 명, 캐나다 몬트리올 인근에 십여 명, 시카고에 7-8명, 플로리다, 텍사스 등 여러 주에 산재해 있다.

앞으로 나아갈 길

수의사의 단합

1960-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개업을 하고 나서 여러 회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초창기에는 면허취득에 있어서 어떤 주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 언어, 문화 그리고 주변 백인 수의사들의 차별과 질시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남가주에서는 한국인 수의사가 많다 보니 그런 것은 많이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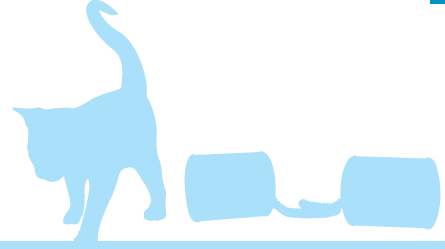
현재 남가주에는 56명의 임상수의사가 59개의 병원을 소유하고 있다.

남가주 전체의 면허소지자는 92명으로 Korean American Veterinarian의 56%가 넘는다. 2010년 신동국 회장의 아이디어로 동물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Lab을 조사한 결과, Antech Lab을 45개 병원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유형규 회원의 도움으로 그들과 Korean group price deal을 하여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협약을 맺어 많은 병원들이 Lab비용을 한 달에 \$300.00 - \$1,000.00을 절약할 수 있었다.

2010년에 7월에 서울대 2명과 건국대 2명의 수의대 연수학생들이 왔을 때 Antech Lab에서는 고급차인 링컨 컨티넨탈로 그들을 ride하여, 부사장 등 5명이 나와서 환대하여 주었고 오전에 Antech Lab을, 점심은 코리안 바베큐에서, 오후에는 Allcare referral hospital을 안내하였으며 끝난 뒤에는 각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다. 부탁한 신 동국 회장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고, 처음에는 과거처럼 우리 차로 학생들을 데려다가 그 곳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로 우리 재미한인수의사 회원들이 단결함으로써 덤으로 얻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단합하여 우리의 실제 권익인 회지의 광고sponsor, C.E.와 골프대회 Sponsor를 더 많이 받아내어 회원들이 복지와 권익뿐만 아니라 후배 젊은 수의사들의 취업 진로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어디에 살던지 서로 단결하여 매우 적은 소수로서 우리 한국인 수의사의 권익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주변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학생연수

1991년 오갑출 서울대 수의대 동창회장의 아이디어로 1992년부터 시작된 재미서울대의대동창회의 학생 연수는 근 20여 년이 되어가면서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 도전 받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고 한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학생들도 있다. 가정에서 숙식 제공과 병원에서 연수를 1-3주씩 자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많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십 몇 년간 1-2 주씩 수고했던 강동원, 이재현 회원 부부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2010년 재미한인수의사회 신동국 회장의 아이디어로 건국대 수의대 학생 2명이 처음으로 재미건국대 수의대 동창회원들의 주관 하에 한 달간 연수와 견문을 넓히고 갔다. 앞으로는 재미한인수의사회와 각 대학 동문회간에 협조하여 타 대학도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남가주에서는 그 동안 한국의 여러 수의과 대학의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많은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연수를 받고 갔고, 그들이 후에 미국으로 들어와서 수의사를 하고 있다. 승원표, 문홍식 회원들은 개별적으로 부탁을 받고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그 동안 서울대의과대학의 초빙 및 겸임교수로 초청받아 20여명이 한국에 나가서 서울대뿐만 아니라 타 대학에도 방문하여 미국 수의사 면허취득 과정과 현실에 대해서 강의함으로써 학생들이 도전 받고 많이 들어 오고 있다. 승원표, 문홍식, 유형규, 이용훈 회원들은 자주 한국에 나가서 강의를 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고 도전을 주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남가주는 젊은 회원들을 계속 총원하여 회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남가주수의사회에서는 C.E과 젊은 수의사들의 모임을 추진하여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Western Veterinary College in Pomona, CA

미국에는 28개의 수의과대학이 있고 인구는 3억이며 땅의 넓이는 한국의 50배는 된다. 웨스턴수의과대학은 미국 내 유일한 사립대학이다. 이용훈 교수가 마취과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다. 2009년 하병래 회원의 주도로 한국인 수의사와 가족 20여명이 기금모금파티에 참여하여 \$5,000.00을 기부하였다. 현재 한국인 1.5세와 2세 학생 20여명이 공부하고 있다. 재미 한국인 수의사의 자녀들도 많이 있다. 하병래 회원은 학생들이 수의과 대학에 들어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미국에는 한국인 수의사 2세 들이 적잖게 있으나 서로간에 멀리 있고 교류가 적어서 단합된 힘은 없다.

문제는 우리 1세 수의사들이 그들과의 연결고리를 추진하여 그들이 2세 한국인수의사로서 긍지를 갖고 우리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는 9만 명이 넘는 수의사가 있다. 한국인 1세 임상수의사는 단지 163명이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후배수의사들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맺는 말

현대는 글로벌 IT시대로서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 연락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다. 유태인들이 서로 협조하여 미국을 움직이고, 중국 화교들이 서로 도우면서 동남아의 상권을 움직이듯이 우리 한인 수의사들도 어디에 거하든 서로 도와야 한다.

우리의 힘은 아직도 미약하다. 앞을 내다보면서 서로 단결하여 권익을 찾고 또한 사회봉사를 통해서 우리 한인 수의사의 사회적 위상과 품격을 높여야 한다.

우리 재미한인수의사회도 발전하여 더 많은 Specialist가 나와서 referral hospital이 생기고 여러 수의사가 일하는 그룹 동물병원이 더 많이 나오도록 서로 돕고 밀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수의사회를 위해서도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야 한다. 38년간 한국수의사회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내왔듯이 앞으로도 서로 협력하면서 도울 때 한국인 수의사의 국제적이 위상도 더 높아질 것이다. 아직도 미국 수의사의 문호가 열려 있는 한 한국의 일년 졸업생 500여명 가운데 2-3%만이라도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서로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의 각 수의과대학에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시행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교정과 조연을 하여주신 정길택, 신쌍재, 지흥민, 주한수, 승원표 선배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각 개인의 업적을 수정, 첨가와 조연이 있으면 신동국 회원의 이메일 daviddongkuk@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update해나갈 것 입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재미한인수의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며, God bless our members family, business and association.

2010년 9월 22일

재미한인수의사회 회장 겸 재미서울대수의대동창회장 신 동국